

'매 맞는 소방관' 4년새 2배 ↑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화재나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 119대원의 순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인권침해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에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씨는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발작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매 맞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200건), 지난해 7월까지 98건(폭행 97건·폭언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 맞는 소방관이 이처럼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

소방관 폭언·폭행 최근 5년7개월간 870건 "소방관들 제압 못해 그냥 피하는 게 최선" 전문가들 "소방 업무조정과 인력충원 필요"

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2014~2017년 7월)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622명중 314건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2명중 1명이 풀이다.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익산소방서 박중우 소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방관들은 (경찰처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때리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산소방서의 정은에 센터장은 "소방관이 맞았어도 내가 공무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직접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고발을 개인이 하기 전에는 조치가 없었다"며 "매뉴얼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오늘 폭행을 당하고도 내일 또 구급차를 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폭행 가해자를 맞은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직원한테는 엄청 두려움이고 스트레스"라며 "신고를 해서 조치를

당했어도 이 사람이 대부분 소방활동 방해죄로 벌금으로 마무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구급대가 맞춰진 지가 불과 2개월 전"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인원이 채워진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전(前) 회장은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찰이 15만이고 소방은 4만명이다. 소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외의 큰 부분은 다른 조직 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적인 충원이나 조직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어색한내 머리 2일 오전 서울 중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동자승 단기출가 석발 수계식에서 동자승이 석발을 마련 후 머리를 만지고 있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책 촉구 건의문 제출키로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가 최근 대책협의회를 열고,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광양지역의 대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2018년 제2주기 대학역량진단을 앞두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정치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두 대학의 폐교는 80만 광양민권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대책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와 지역대학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학의 존폐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우 (재)백운정화회 상임이사 등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사학단체장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부터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佛, 노동절 시위 격화로 300여명 대거 체포

프랑스 파리에서 1일(현지시간) 열린 노동절 시위로 300여명이 대거 체포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과격 행위로 31개 사업장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곳과 차량 6대가 불에 탔고, 10명이 다쳤다"며 "체포된 278명 중 102명을 구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을 맞아 열린 노동 행진은 '블랙 블록(Black Bloc)'로 알려진 좌파 무정부주의 단체가 참여하면서 격화됐다. 경찰 추산 블랙 블록 회원 1200여명이 파리 행진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검정 재킷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파리어, 일어나(Rise Up, Paris)' '모든 사람이 경찰을 혐오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다.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창문을 치켰다며 "에마뉼 마크롱은 우리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폭력과 반달리즘(기물 파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모로코, 반군 지원 이란과 외교 관계 단절

모로코가 1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서부 사하라의 폴리사리오전선 반군들에게 자금과 군사훈련, 무기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발표했다.

나세르 부리타 모로코 외무장관은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외교 관계 단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란 주재 모로코 대사는 이미 테헤란을 떠났다. 부리타 장관은 모로코 주재 이란 대사관도 곧 폐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리타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지난 2016년 이후 폴리사리오전선 반군에 재정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공한다는 증거를 입수,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헤즈볼라가 지난달 폴리사리오 반군에 무기를 처음으로 보낸에 따라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모로코의 외교 관계 단절 결정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브라질서 화재로 24층 고층 건물 무너져

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큰 불이 나 24층짜리 고층 건물이 무너졌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0분께 상파울루의 24층짜리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뒤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 사망, 3명 실종이 확인됐는데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무너진 건물은 1968년 지어져 경찰청 본사로 쓰이다가 2002년 이후로는 버려졌다. 최근에는 불법 거주자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0가구가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탈출 여부는 불분명하다.

목격자들은 불길에 건물 위로 치솟는 가운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옥상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이 확인된 남성은 구조 작업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분명하다. 건물을 점거 중이었다는 한 남성은 불이 나기 전 가스가 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 주택가 나무위서 잠자던 큰곰 발견

미국 뉴저지주 페러머스의 한 주택가에서 4월 30일(현지시간) 나무 위에서 잠자고 있던 큰 곰이 발견돼 동물 보호관리들이 소음 발생기를 이용해서 잠을 깨우고 나무에서 쫓아 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동물 보호국 관리 캐럴 타이러는 노스 저지 닷컴(NorthJersey.com)에서 이 곰이 아마 음식 냄새에 이끌려 이 주택 근처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곰이 더 아래로 내려오면 진정제 주사를 발사하거나 떨어질 경우 그물 망으로 잡아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90kg가 넘는 이 큰 곰은 결국 멀리 떨어진 자연환경으로 데려가 방사할 예정이었다.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에는 이 곰이 나무가지 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소음에 겁이 났 뒤 다시 잡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밀이 존중됩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